

# 開化期 叙事文學의 一研究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에 나타난  
夢遊錄 寓話 討論을 中心으로—

朴 逸 勇\*

## I. 序 論

개화기 문학 연구는 한국 문학 연구의 視點 정립을 하는데 관건이 되는 부분이다. 한국 문학 연구에서 실질적인 연구 업적을 통해 移植文學觀이 청산되지 못한 것도 따지고 보면, 개화기의 문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개화기 문학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전이지대에 생산된 문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의 양 쪽에서는 각각의 틀(Frame work)을 통해서 개화기 문학을 재단함으로써, 개화기 문학의 특성을 바로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여지껏 개화기 문학은 과도기문학으로만 이해되어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개화기 문학이 결과적으로는 과도기의 문학이라 할지라도, 현대 문학이나 고전 문학의 고정된 형식적 틀을 통해서 과도기적으로 본 것과, 개화기라는 시대적 특성을 밝힘으로써 과도기 문학으로 본 것은 분명한 의미의 차이를 갖는다.

여지껏 한국 문학사에서 이식문학론 또는 고전과 현대문학의 전통 단절논의 등이 종식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현대와 고전문학의 형식적인 고정관념 속에서 서로를, 또는 개화기 문학을 진단하려 들기 때문이다.

올바른 개화기 문학 연구는 이러한 현대문학과 고전 문학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화기 문학을

\* 國語國文學科 四年

제대로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을 바라 보았을 때, 여지껏 고정관념으로 있었던 현대문학과 고전 문학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의 논설과 寄書로 발표된 夢遊錄, 寓話, 討論의 형식을 갖는 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지껏의 개화기 문학연구가 현대문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대문학의 형식과 다른 것은 개화기 문학연구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대상 작품들도 이러한 이유에서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대상 작품들은 논문 말미의 작품 연보에서 볼 수 있듯이 1898년 즉 광무 2년에서부터 광무 3, 4, 5년을 절정으로 하여 1905년인 광무 8년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필자의 추측으로는 이것들이 일제의 칙령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그것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칙령이 거의 완료된 1905년 이후는 신문의 검열제의 실시로 발표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sup>

본 연구의 대상 작품이 아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이유의 또 한 가지로, 그것들이 신문에 論說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것을 들 수 있다. 즉 論說이라는 題下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文學研究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오히려 직접적인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開化期의 論說에 대한 개념을 검토해 보면, 皇城新聞 光武 3年 2月 24日 論說에,

“論說이 무어신고 一증략一 直陳其事도 하고, 委曲風諭도 하고, 見景生情도 하여 그 世道風化를 裨益도록 함이라.”

- 1) 1905년 을사 조약이 체결된 후는 검열제가 실시되고, 1907년에는 신문지법이 실시되어 반일적 논조의 글들은 발표되기 어려웠다. 본고의 대상작품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06년 이후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1906년은 최초의 신소설이라고 하는 血의 淚가 만세보에 발표된 해라는 데서, 본고의 대상작품들과 신소설과의 성격차이를 추측할 수 있다.

고 하여 委曲風諭, 見景生情등을 들으로써, 오늘날의 論說과는 형식적으로 달리 표현할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委曲風諭, 見景生情은 文學的 表現 形式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本 연구에서는 이들의 형식을 前時代의 문학형식과 비교해보고, 이러한 형식이 왜 개화기에 가능했으며, 또한 어떤 의의를 가졌던 것인가를 이것을 생산한 작가계층의 세계관을 밝혀 냄으로써, 分析해 보고자 한다. 다만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量的으로 상당한 분량인 이들 대상작품을 개별적으로 철저히 분석하지는 못하고, 그것들 중 몇 작품의 개괄 정도에 그치는 試驗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 Ⅱ. 文學생산의 토대로서의 開化期

### 1. 開化期와 開化期 文學

개항부터 합병 전후까지 30여년이라는 단기간 동안의 변혁적 위기시대에 생산된 개화기 문학은 그 형식에 있어서 完結性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개화기 문학은 史學, 經世學, 저널리즘과 유착되어, 형식적 미분화 상태에서 民族運動의 방편으로 간주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개화기라는 시대의 기간이 文學의 형식을 완결하여 정착시킬 수 있을만큼 충분히 길지 못했던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큰 이유는 개화기라는 特殊한 시대가 文學에 대해, 그것의 自足的 형식보다는 시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대의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의 문학이든지 문학이 그 시대의지와 총체적인 사회형식을 반영하는 것은 一般的인 사실이지만, 특히 한국 개화기 문학은 한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위기에 대처하는 다양한 계층적 시대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개화기 문학의 이러한 시대의지의 직접적 표현 형식과 그것을 생산한 작가계층의 당대에서의 현실관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화기 문학 연구에서 문학형식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가층의 현실적 세계관이 한국근대사에서 갖는 의미가 선행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개화기 문학은 朝鮮의 近代化 과정에 발생한 民族內部的 기본 모순과 世界史的 의미에서의 民族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식민지 국가의 모순이라는 두개의 축 속에서 전개되는, 한국 근대사의 문학적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화기 문학의 이해는 개화기 민족운동사 이해의 裏面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自生的이고 內發的인 資本主義 및 그에 준한 이데올로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近代指向 意志와 봉건적 지배·생산 관계를 고수하려는 양반 관료계층의 진근대적 의지의 대립 과정에, 독점자본주의 국가의 자국내의 모순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제국주의 의지가 개입됨으로써, 한국 근대사는 發展의 역량을 분산당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자생적 근대화 역량은 국권보존이라는 짐이 추가됨으로써, 통일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더우기 근대적 의지와 봉건적 의지가 모두 民族의 생존권 보존을 위한 民族運動으로 전환됨에 따라, 民族運動의 성격은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띠었으며, 제국주의 침략세력이 그들의 저의를 근대 문화의 이식이라는 가면 속에 숨기고 침투함으로써, 민족적 역량은 한층 분산되어 近代化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民族運動은 더 한층 혼류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民族運動의 혼류 양상은 개화기 문학에 그대로 반영되어, 각각의 민족운동에 대응되는 여러 형태의 文學이 생산되었던 것이다. 즉 本考의 대상작품, 新小說, 의병가사, 동학가사 倡義詩 等 개화기 文學은 개화기라는 한 시대의 공분모 속에 묶어버릴 수 없는 각각의 意味를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개화기의 民族運動 및 그에 상응하는 개화기 文學의 다양한, 나름대로의 意味가 과거의 歷史와 文學연구에서 상당히 간과되어,

혹자는 민족문제에 민감하나 사회개혁 문제에는 등한하고, 혹자는 반대로 사회개혁 문제에는 민감하나 민족문제에는 소홀하였으며, 또 혹자는 민중적 입

장에서 사회개혁과 민족문제를 주장하였으나, 후자는 지배층의 입장에서 사회개혁과 민족문제를 내세웠다.<sup>2)</sup>

라고 한 것처럼 개화기 歷史와 開化期 문학의 이해가 평면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 게 대부분이다.

특히 文學분야에서는 서구적 文學形式이라는 고정개념을 통해 개화기 문학을 바라봄으로써 開化期文學=移植文學이라는 결론을, 또는 開化期文學 속에서 文明開化, 혹은 자주독립 사상이라는 평면적인 요소만을 찾아내려 하였기 때문에 開化期의 文學形式들이 그 시대 속에서 가졌던 意味 및 그 前代와 後代와의 관계 속에서 가졌던 意味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개화기 공간을 평면적인 시각에서 이해했던 근본 이유는 “개화기”라는 시대 공간 연구에서, 첫째 조선사회가 갖고 있었던 自主的 近代化의 力量과 그 實像의 客觀적 分析, 둘째 이러한 力量을 파괴해 나갔던 帝國主義 침략과정의 실상 파악을 수행하지 못한데 있다. 나아가서 그러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민족의 주체적 생존권을 보존하려던 여러 형태의 民族運動이 실패로 그쳐버린 이유를 각각 운동이 가졌던 意味와 한계 속에서 찾아내지 못한데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룩된 뒤에 성립될 수 있는 개화기 공간의 바른 이해는, 궁극적으로 실패로 끝나버린 개화기의 민족운동이 실천규범으로 표방했던 운동이론(Theorie)과 당시의 客觀的 상황(Praxis) 사이의 거리를 바르게 측정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화기라는 시대 공간의 반영체이며 또한 능동적인 民族運動의 매체이기도 한 개화기文學은 그 운동이 표방하였던 理念을 문학형식 속에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민족운동의 이념적 한계와 의미 그리고 그것의 文學形式에 轉移樣相을 추적하는 것이 開化期 文學研究의 선행요건이라 할수 있다.

2) 김용섭, 서평: ‘신용하저 독립협회 연구’(한국사 연구 12호, 1976. 4) p.150.

## 2. 개화기의 時代意志

개항 이후 함병까지의 朝鮮近代史는 내적 토대 및 客觀的 상황의 변화에 따라, 1) 개항에서 甲午 農民戰爭이 일어난 1894년까지를 第一期로 2) 1894년부터 乙巳조약이 성립한 1905년까지를 第二期로 3) 그 후 함병까지를 第三期로 나눌 수 있다.

一期는 世界史的인 意味에서 보아 帝國主義의 前段階로서 열강의 식민지 분할 경쟁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피식민지 국가의 民族의 力量이 고립 분산되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개량주의적 변혁을 위한 民族運動이 全社會의 基本的 力量을 가졌던 농민대중과 긴밀한 연계관계를 맺지 못함으로써 近代化 過程에 통일적인 力量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특징적이다.<sup>3)</sup>

朝鮮에서도 이 시기의 변법적 개량주의 운동이었던 甲申政變이 주도층과 그 당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민층과 분리된 상태에서 수행됨으로써 실패로 끝나 버렸다.

朝鮮 후기에는 이미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農業生産力의 증가, 상업발달로 인한 農産物의 상품화, 인구의 증가, 그리고 신분제의 해체 및 광범위한 농민층의 분해로 농촌 부농과 광업, 상업의 資産家들이 나타나고 있었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資産家 계층은 甲申政變 당시 아직 市民革命을 수행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민 대중층이 封建的 수탈 위에 近代的 農業資本의 수탈이라는 이중적 수탈로, 토지로부터 유리되고 추방되어 계층간의 갈등이 극대화됨으로써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농민층의 폭발력은 이 시기에 조직화되지 못함으로써

3) 大江志乃夫, '近代 東アジアにおける 變革の 歴史的 諸形態', (歴史學 研究 303호, 日本 歴史學 研究會. 1965. 8)

4) 이 부분에 관해서는 최근 김용섭, 강만길, 이호철 등 한국 연구가와 宮嶋博史, 安乘珩등 일본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깊이있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실패로 끝나버린 쏘아시아적 농민반란 형태로 나타났었다.

이처럼 갑신정변은 주도층이 근대적 자산가 계층의 이념을 대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층이 改革을 추진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시대에 광범위한 농민층 속에 내재해 있던 힘을 개혁의 추진력으로 흡수하지 못한 데 그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 소수중심의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던 甲申政變의 주도층은 계층적으로 농민층과는 대척적인 관계에 있던 양반과 중인층이었기 때문에, 농민을 개혁의 추진세력으로 흡수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였던 것이다.<sup>5)</sup>

그들의 農業觀을 살펴보면 오히려 近代 초기의 實學者들의 農政觀에서도 일보 후퇴해 있음을 알수 있다. 그들은,

“現行의 不條理한 土地所有 관계를 그대로 인정한 채 그 위에 農政을 전개한 데 불과 했다. 金玉均은 甲申政變의 政綱에서 단지 地租改正(稅制 改革)만을 내세웠을 따름이며, 朴泳孝는 地租改政과 더불어 현재의 토지 소유권자에게 소유권 증서인 地券을 발행할 것을 건의했을 따름이다. 즉 그들은 토지의 개혁이 아니라 토지제도 현상의 더욱 확고한 유지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였던 것이다”<sup>6)</sup>

극도로 문란된 田政, 軍政, 選覈等 봉건적 수탈체제 및 資本主義의 수탈로 야기되는 農民반란의 힘을 改革에 끌어들이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초기의 民族運動은 大衆의 기반을 얻지 못하고 別入侍라는 特權을 이용한 國王의 開明化, 그리고 近代의 資產家 계층화의 경향을 보이는 소수 중인, 양반 계층을 계몽하는 소수 선각적 지식인에 의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sup>7)</sup>

그렇기 때문에 초기 민족운동의 이념은 광범한 독자 대중을 형성할 수 있는 民衆과 유리됨으로써 文學形式을 정착화할 수 있는 理念的 심화를 이룩하지 못했다.

5) 姜在彥, 「朝鮮 近代史 研究」, 「開化思想·開化派·甲申政變」 日本評論社. 東京 1970.

6) 김용섭, 「韓國近代農業史 研究」중 “甲申, 甲午 改革期の 농업론” —潮閣 1975, p. 309.

7) 姜在彥, 위의 책 pp. 80~81.

제 2 기인 1894년부터 1905년까지는 日本帝國主義 침략이 본격화된 시기이며 朝鮮의 植民地化가 급격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그리고 3기인 1905년 이후는 植民地化가 실제적으로 완료된 단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2기에는 國權守護, 그리고 3기에는 國權回復을 위해 民族運動의 성격은 戰爭化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애국계몽 운동과 義兵戰爭의 강력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들 民族運動이 실패로 끝나버린 이유는, 먼저 義兵戰爭에서는 義兵將과 義兵大衆인 農民層과의 분리라는 데서,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에서는 民衆運動을 主導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理想的 基盤인 선진적 資本家 계층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1900년 전후 朝鮮의 社會, 經濟는 半植民地, 半封建的 구조를 갖고 있었다.<sup>8)</sup> 먼저 농업의 측면을 보면 봉건적 수탈의 강화와 資本主義的 수탈의 강화로 지주의 토지 집중과 농민의 토지 이탈이 前 時代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더구나 이 당시 資本主義的 방식에 의한 농민수탈은 주로 日本帝國主義의 資本에 의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農民層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反帝, 反封建의 性格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의병전쟁은 농민들의 이러한 生活토대에서 우러나오는 反帝的 욕구와 衛正사상을 가진 農村 유생들의 國權보호 의식의 결합 위에서 성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병장과 의병대장은 본래부터 理想的 기반을 달리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병장과 의병대장의 理想的 차이는 결국 의병전쟁을 실패로 끝나게 하였다. 즉 의병전쟁이 根本的으로 반일 애국주의를 표방하였으면서도, 의병장의 思想的 動因이 專王攘夷=反日이라는 等式에서 연유한데 반해 의병대장의 애국 理念은 직접적인 삶의 條件에서 우러나와 反帝, 反封建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의병전쟁은 실패의 요인을

8) 安秉直, '19C末~20C初 사회경제와 민족 운동', 「3.1運動」추천문고, 韓國日報社, 1975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고종의 단발령 철회안이 내려지자 의병장은 의병을 해산하였지만, 의병대중의 투쟁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 火賊, 活貧黨, 東匪, 英學黨으로 불리우면서 전국을 무대로 活動을 하였다.<sup>9)</sup> 이들은 조직적 연대성을 갖지는 않았으면서도 同一한 理念的 目標을 갖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민족운동의 주도적인 세력이었다.

그들이 내건 “國政과 民冤의 十三條目”을 보면 1. 市場에 外商을 엄금하여 경제적 약탈을 방지하고, 2. 行商에 대한 가혹한 징세제도를 폐지하고, 3. 금광, 삼림 채굴권을 외국에 넘기지 말며, 4. 私田을 혁파하여 均田制를 확립하고, 5. 곡가를 안정시키고, 6. 외국에 곡류 반출을 엄금하는<sup>10)</sup> 등 당시 피폐한 民衆生活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제국주의의 경제 침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民衆의 生業을 안정시킬수 있는 “安民의 策”과 “新法의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다.

의병장들의 이러한 민중의 理念을 수용하지 못한 封建性은 그들이 生産한 文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倡義歌, 絶命詩들이 강한 反帝國主義 의식을 表現하였으나 近代的 의식은 수용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이 당시 資本主義 경제의 측면을 살펴보면, 그것이 아직 국민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農民經濟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都市라는 지역적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지라도, 一部 商業的 農業 및 商業, 工業 분야에서 資本主義 경제가 상당히 발전해 있었다. 그러나 帝國主義 침략 세력은 1. 각종 이권 탈취, 2. 상품 수출, 3. 조선에 기업 설립 등의 방법으로 국내 민족자본 성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sup>11)</sup>

애국계몽 운동의 理念的 토대는 바로 이러한 民族資本 성장 저해에 대한 반발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애국계몽 운동은 광범위한 民衆的 기반을 획득하여 民族運動의 二大主流의 하나가 되

9) 姜在彥, 위의 책. pp.223-224.

10) 姜在彥, 朝鮮 近代의 變革思想 日本 評論社, 東京 1973. p.91.

11) 安秉直, 위의 논문.

있던 것이다.

그러나 애국계몽운동의 理念을 지탱할 수 있는 理念的 토대가 되어야 할 先進的 資本家 계층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고 民衆의 기반도 도시 중심적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들의 이러한 理念的 한계는 민중적 투쟁세력인 義兵을 火賊으로 보게 한다.

近日 所謂 義兵이라 名稱하는 者 山棚獵戶를 招集하며 輕士를 會同하며 浮浪失業等 破落戶를 集會하며 一중략一 原任 義兵大將 柳寅錫은 斥倭斥洋이라고 所謂 義兵을 倡起하며 一國을 騷亂하며 萬姓을 毒害하며 畢境 殊域에 潛蹤하다가 今春에 一중략一 所謂 排外 運動은 國家 生靈을 危亡케 하는 催命符이라 東秀西圮하는 傾覆를 搖動하며 一중략一 所謂 義兵이라는 鬼怪號들로 陷窾을 自掘하며 網羅에 自羅하는 催命符이니 一하략一<sup>12)</sup>

이처럼 애국계몽 운동은 民衆의 직접투쟁인 義兵運動을 국가 멸망의 催命符로 본데 그 본질적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上記한 바와 같이 民族運動의 지도자 계층이나 관료계층이 愚民視 하고 火賊視한 農民들은 자신들의 삶 자체 내에서 近代化의 理念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화와 국권보존이 개화기의 민족운동 지도자들에게는 상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일부 애국계몽 사상가들은 국권보존 의식의 약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그들이 농민층과는 달리 近代化나 국권보존 의식을 民衆의 삶의 조건 속에서 형성시키지 못하고 抽象的인 국가 또는 文明개념 속에서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 3. 愛國啓蒙 運動 및 開化의 意味

한국 근대사에서 近代化와 國權保存이라는 두 명제는 표리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태도는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개항부터 市民革命 및 產業革命을 거친 후 독점자본주의 상태에 돌입한 서구의 文物 및 제도가 힘의 우위를 점유하고 中華의 세계관에 걸쳐

12) 大韓每日申報, 1905년 9월 10일 義兵消息란.

있던 조선을 힘으로 개방시켰다. 더구나 그들이 침략적 의도를 숨기고 상륙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近代化의 개념을 西歐化라는 意味로 이해하는 현상이 개화기 선각자들에게 두드러졌다.

그러한 대표적인 例로 실패로 끝나버린 變法的 開化派인 개화당의 지식인들을 들 수 있다. 甲申政變의 주도층인 개화당은 思想的 계보를 傳統的인 實學에 두고, 또한 그 理念의 토대를 部分的으로 형성된 근대적 부르조아 계층 속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가졌던 開化意識이 抽象的이고 概念的인 西歐化 思想이었다는 것을 甲申政變의 실패로 입증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 속에서 自由民權主義의 확립과 自主獨立이라는 명제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의 主體들 自國內의 세력 속에 두지 않으면 수행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광범위한 民衆 속에 힘의 기반을 둔 甲午農民戰爭의 近代的 民權思想이 甲申政變보다 초기 民族運動으로서 힘을 발휘하고, 관료적인 점진적 개량주의 세력에게 甲午改革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은<sup>13)</sup>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화와 국권보존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시사해 준다. 즉 그것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해 주었던 것이다. 또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계층은 농민층을 중심으로한 광범한 民衆層이었다는걸 말해주는 것이다.

甲午改革 이후에도 상황은 동일하다. 즉 1. 甲午 이후 상업적 농업이 많은 분야에서 한일 합병시 보다도 진전되어 있었고, 2. 그것을 담당한 自小作 上農層이 광범하게 존재하였으며, 3. 그들에 의한 토지 소유를 위한 움직임이 완강히 전개되었다.<sup>14)</sup>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帝國主義

13) 姜在彥, 앞의 책. p. 208.

厥堂(農民軍)原情於巡邊使 臚列時弊幾條 我政府奉命設校正廳 差堂上十五員 先革弊政幾條皆東黨(農民軍)原情中事也. 慾以爲自主改革之漸以防日人挾.

14) 宮嶋博史, '朝鮮甲午改革以後の商業的 農業(三南地方を中心に)' (史林 57 권 6호 1974. 11) pp. 54~70.

세력에 의해 저지됨으로써, 反帝의 농민항쟁을 유발시켰다.

또한 도시적 산업과 상업부문에서도 일제의 상업 및 산업적 침탈에 대해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民衆의 생존권 보존을 위한 노력은 근대화 및 국권 보존이라는 양대 명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수행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힘의 원천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애국계몽 운동 지도자들은 이러한 민중들의 힘을 파악하지 못했다. 애국계몽 운동이 이 시기에 들어와서 약간의 대중적 기반을 획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민중층을 힘을 소유한 주체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선도되고, 교육되어야 할 愚民으로만 파악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영웅시하여, 민중들과는 동떨어진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민중과 합치될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 놓았었다. 이러한 민중과의 간극, 이것이 개화기 애국계몽 운동의 벽이자, 그들이 생산한 文學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였던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近代 指向的 의지를 지녔던 進步的 지식인의 계보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개화 자강, 또는 애국계몽운동이라 불리우는 계열 중 西歐的 교양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시민적 민권주의를 강조한 일군의 지식인들로, 이들은 주로 서구에 유학을 다녀왔거나, 당시 무수히 건립된 각급 학교에서 新教育의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이다. 안창호, 양기탁, 서재필 이승만 등이 그들이다.

둘째, 애국계몽운동의 다른 부류로서 이들의 사상적 계보는 서구에서 직접적인 開化 思想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청 말의 自強思想<sup>15)</sup>에 영향을 받아 개화의식을 형성하였다. 張志淵, 朴殿植, 申采浩 등이 그들이다.

셋째, 점진적 개량주의라고 할수 있는 관료지배층이나 그들과 동계를 달리는 일군의 사람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주로 日本에 관비 유학을 받았던 사람들로서, 이들에게는 국권 보존이라는 민족적 명제는 해

15) 자강사상은 청말의 변법적 개화파인 양계초에 의해 주장되었다.

당되지 않는다. 이들에게 있어서 개화는 봉건적 모순의 해결을 통한 민족 보존의 힘을 추출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풍속 개량 또는 신기술의 습득이라는 파생적이고 지엽적인 데서만 그 의의를 가졌던 것이다.

本考에서 다룬 作品들의 作者群은 둘째번의 애국계몽운동 세력 중에서 청말 자강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유교적인 漢學의 소양을 풍부히 갖고 傳統적인 實學思想에 그 계보를 가지면서도 清末의 自強의 개화사상에 영향을 받아 開化의 意味를 이해했던 것이다. 이들은 帝國主義 침략을 받았던 중국을 통해 개화사상을 수입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開化는 철저한 國權意識의 전제하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급진적 개화파라고 할 수 있는 서구적 민권 사상가들에 비해 보수적 성향을 띄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오히려 이들에게는 漢學的인 유교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이들의 儒敎思想의 흔적은 앞으로 分析할 그들이 생산해낸 文學作品 속에 강하게 노출되어 있다.

## Ⅱ. 文學 형식과 作家의 世界觀

### 1. 作家의 현실 인식 태도와 文學形式의 상관성

본래 藝術의 形式은 작가의 독자들에 대한 충성, 소박한 대중과의 정신적 연대감,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진실성을 유지하려는 작가의 강한 욕망 속에서, 그리고 정서화된 독자층과 합치되려는 강한 共同體의 연대감 속에서 생산되었을 때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共同體의 연대감은 前記한 바대로 共同體의 생존 및 유지를 위해, 그것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作家가 共同體의 주도체 속에서 발견해내고, 抽出해내며, 그것을 文學形式으로 客觀化하였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作家는 當代 현실에서 여러가지 잡다하게 발생하는 事實들의 集合體 속에서 현실의 변화과정을 客觀的으로 포착함으로써 作品의 典型性과 Reality

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러한 客觀的 변화의 흐름의 포착은 作家가 단순히 概念的 차원에서 현실을 分析했을때는 불가능하고, 구체적 현실(Concrete reality)에 토대를 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自身の 세계관을 구상화한 作品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세력의 전위가 되었을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作品의 진정한 Reality의 획득조건은 그렇기 때문에 作家와 당대의 共同體의 주축인 민중과의 세계관적 간극의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作家와 共同體의 주축인 민중과의 세계관적 간극은 作品으로 표현되는 현실에 대한 “당위적 현실”과 “가능적 현실”사이의 일치 가능성을 作家가 어디에서 찾아내는가 하는데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당위적 현실과 가능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꿔나가는 과정이 창조적 叙事文學이 전개되는 空間으로 남게되는 것이다. 18C에 광범위하게 생산되었던 한문단편<sup>16)</sup>과 그 작가층이 그것을 생산해낸 시대적 배경과 갖는 관계 속에서 당위적 현실과 가능적 현실의 간극이 극도로 축소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시의 광범한 농민층의 분해를 통한 부농의 형성과 몰락 농민의 탄생 현상, 그리고 상업발전을 통한 신흥 부자 및 봉건적 신분제도 붕괴를 통해 나타나는 무수한 몰락 양반과 그들의 행위 등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에로 이행을 나타내주는 초기적 징후이었다. 이러한 客觀的 조건위에서 1) 평민의 치부담, 2) 몰락 양반의 치부담, 3) 기타 부의 축적 과정에서 야기되는 이야기들을 소재로 한 한문단편이 다수 생산되었다.<sup>17)</sup> 이러한 한문단편의 소재는 당시에 빈번히 발생한 역사적 현실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역사발전의 추이를 감지한 작가군들이 보편적인 사실로 典型化하였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작품들은 새로운 역사적 현실을 위한 매개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16) 박희병, '19세기 한문 단편 연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지양, 창간호.) 1980.

17) 박희병, 위의 논문.

즉 치부담의 전형화는 봉건적인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극복하고 근대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이룩하려던, 공동체가 가졌던 보편적 시대의 지지가 몰락양반과 중인 계층의 입을 통해 文學的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들 이야기꾼들은 시대의 주축이 아니라 그 변두리 계층으로서, 시대의 지지를 自己化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본래의 자신들이었던 양반 및 중인의 세계관을 깨뜨리고 철저한 자기부정을 달성함으로써 세계관의 재관화를 통해 작품을 썼기 때문에, 그들이 쓴 작품에서는 작가와 현실과의 간극이 극도로 축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작품이 제시하는 명제들을 구체적인 행동양식의 모델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작품의적인 현실적 명제에 대해 변증법적인 매개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공동체와 작가는 동일한 전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동일한 방안을 공유한다. 즉 자신들에 대해 질극으로 작용하는 봉건적 생산관계의 타도와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수립이 그들의 전망이다. 이처럼 한문단편이 자기부정을 통한 시대정신의 自己化에 성공한 작가의 문학이라면, 판소리계 평민소설 및 가면극은 애초부터 자신의 계층적 속성 속에서 시대의 지지를 창출해낸 基層民의 지층문학이다.<sup>18)</sup> 그렇기 때문에 한문단편이 현실적 변화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미래상을 제시하는 반면, 판소리계 평민 소설 및 탈춤의 대사에는, 그들을 생산한 계층의 가열한 욕성이 담겨 있다. 즉 현실적 모순의 초점이 그들 계층에 있음으로 해서, 그들은 그 모순을 생존적 본능 속에서 깨닫는다. 이러한 모순 인식은 풍자와 해학을 통해 그 극복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생산해낸 문학은 극적 구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실적 묘사에 의해서건, 극적 구성을 통해서건, 한문 단편과 판소리계 평민 소설 및 탈춤은 '당위'와 '가능'의 간격을 극도로 축소시킨 문학이라는데 일치점을 갖는다.

18)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pp. 213~233.

이와는 달리, ‘가능’과 ‘당위’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힘’을 작가가 발견하지 못했을 때, 비판 문학으로서 Allegorie가 문학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알레고리는 다시 말하면 작가가 객관적 ‘힘’의 세계에서 소외된 상태에서 발생한다. 즉 작가가 공동체 내부의 ‘현실적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지 못할 때, 그리고 국외자로서 비판적인 태도만을 견지할 때 이러한 문학 형식이 발생한다.

조선 중기 이전에는 풍유록, 가전체소설 등 알레고리 문학이 상당수 생산되었다. 이들은 주로 양반에 속하면서도 관료지배계층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 의해 생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봉건적 모순을 비판하면서도, 개혁에 대한 비전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봉건체제의 모순이 근본적으로 노출되는 18~9C에 이르러서는 비판적 세계관을 갖는 양반이 다수 등장하여 알레고리적 풍유, 골계 등이 한문 서사문학의 보편적인 장르가 되었다.<sup>19)</sup>

당시 봉건적 지배원리의 이념적 배경인 朱子學의 학적 모순을 비판하고, 백성의 실제적인 삶에 이용될 수 있는 경세학인 실학이 새로운 時代思想으로 등장되었는데, 이들 실학의 연구가들인 연암, 문무자, 이광정 등이 봉건적 질곡 및 모순에 대한 풍자와 야유로써 알레고리 문학을 창작하였다. 이들 알레고리 문학은 그러나 비판적 양반문학으로 남아 있었다.

이들 작품 속에는 물론 비판적 세계관 속에 보편적인 역사적 추이를 용해했거나, 감지한 작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연암의 허생전, 광문자전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적인 작가의 ‘자기 부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알레고리 문학의 작자 계층은 봉건적 모순을 비판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자기계층의 한계를 뛰어 넘지 못하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이는 바로 이들의 思想的 表現인 實學이 봉건적 모순 속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봉건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近代的思想이 아니라는 점과 동태를 달리하는 것이다.

19)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민중서관, 1971. pp. 354~375.

즉 객관적 세계로서 봉건체제 내에서 그 모순을 직접적으로 강요받고 있던 계층이 그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근대 세계를 형성하려는 비전을 작품 속에 형상화한 것이 한문단편과 판소리계 평민 소설이라면, 그 모순을 抽象的인 概念 속에서 認識하고 그 모순의 핵심으로부터는 소외되어 있었던 知識人의 세계관적 반영이 이러한 Allegorie的 문학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京城新聞·大韓每日申報의 作家의 世界觀과 文學 形式

朝鮮時代 末의 Allegorie的 文學의 世界觀과 文學形式은 개화기의 애국계몽 운동가중 자강사상가들에게 강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조선시대의 알레고리적 문학형식은 개화기 알레고리 문학형식과 유사한 세계관적 기반을 갖는다. 이러한 前代와의 관계 위에서 당시 近代化와 국권보존이라는 급박한 현실적 명제를 감당해야 했던 개화기의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의 文學形式은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황성신문은 1898년 3월 4일 鄭海源, 尹致昭, 尹致昊 등이 京城新聞을 창간하였으나, 대한황성신문으로 改題되고, 다시 1861년에 황성신문으로 再改題됨으로써 등장한 신문이다. 張志淵, 南宮樞, 柳瑾 등이 권력을 물려받아 신문을 창간하였고, 朴殷植, 金相天, 南宮薰, 申采浩 등 漢學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필진으로 관여하였다. 그리고 대상 독자도 중류 이상의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大韓每日申報는 Ernest Bethell을 사장으로 세우고 梁起鐸이 총무가 되어 朴殷植, 崔益, 申采浩, 玉觀彬, 張志淵 등의 자강적 개화파들과 더불어 李甲, 安昌浩 등의 서북학회의 서구적 개화사상가까지도 흡수하였다.<sup>20)</sup>

이처럼 개화기 초기의 신문이 주로 培材學堂 출신이 아니면 서구유학 혹은 선교사를 통한 서구문화를 호흡한 급진적인 개화파들에 의해 주도되었던데 비해, 이들은 前記한 바대로 漢學의 전통 위에 청말의 자강사상을 흡입한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20) 崔 竣, 「韓國新聞史研究」 일조각, 1970, pp. 81~114.

이들 自強思想家들은 처음에는 깊은 朱子學의 소양을 키워, 朴殷植은 華西 李恒老 계통인 朴文一 형제에게 수학하고, 申老永, 丁觀燮을 통해 茶山의 저작을 읽었으며, 이미 30세 때 16~17C의 대유학자 鮮于澗 이래 西道 최대의 大儒로 일컬어졌다.<sup>21)</sup> 또한 張志淵의 경우도 영남 도학기풍을 이어받아 젊은 시절 이미 儒學의 大家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의 이러한 儒學的 지식은, 그들이 1898년 황성신문 창간을 계기로 自強的 開化思想을 갖게 된 후에도 그들 사상의 근간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自強論은 유교적 착상이며, 유교이념의 다른 표현이었다. 이는 '自強'의 개념이 주역의 乾健괘의 '自強不息'이라는 말에서 유래하고, 그들의 개화사상이 양계초의 『飲水室文集』을 근간으로 하여 형성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sup>22)</sup> 그들에게 있어서 유학사상의 이상은 孔子의 大同思想<sup>23)</sup>이었다. 청말의 변법론자들이었던 강유위, 양계초의 公羊學的 유학사상이기도 했던 대동사상은 한말의 유교적 개화론자들의 사상적 공분모였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思想的인 원류였던 청나라의 사상가들이 變法的 開化운동이었고, 韓末의 民權思想家들이 변법적 개혁운동을 주로 표방하였던데 비해 이들 애국계몽적 자강사상가들은 식산과 흥업을 위한 ① 교육 구국 ② 신 과학 기술을 통한 산업 진흥 ③ 국학 보급을 통한 민족문화 창조 ④ 국권회복 등을 목표로 한 계몽 운동이었다.<sup>24)</sup>

또한 이들의 국가 관념에서 國體의 개념은 近代的 民權主義와는 거리가 있는 尊王主義의 궤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었다. 民權主義에 다다르지 못한 그들의 世界觀은 啓蒙이라는 民族運動 방식 속에서 뚜렷이 表出된다. 啓蒙이라는 개념은 이미 그 속에 啓蒙者와 계몽 대상 간에 합치되지 않은 거리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 이는 개화기의 선각

21) 慎錫廈, '朴殷植의 애국계몽사상' 「한국의 근대사상」 삼성출판사, 1976.

22) 尹南漢, '張志淵의 생애와 思想' 「한국의 근대사상」 삼성출판사, 1976.

23) 공자의 유학사상을 시의에 맞게 혁신하여, 準化, 平等, 兼落, 獨立, 博愛, 至誠 등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24) 慎錫廈, 위의 논문.

적 지식인들이 대다수 民衆의 우위에 서서 그들을 교육하려는 태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계몽주의는 계몽의 이념을 생산해낸 계층이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힘을 가지고, 자신들 행위의 이념적 정당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식의 운동이다. 그러나 힘을 통한 帝國主義 침략에 대항하여 그것에 맞서 싸워 나갈 힘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는 유효하지 못한 방식이었던 것이다.

“足下의 의문이 사실과 같다. 그러나 足下가 이미 乾健自強不息主義는 알고 있으니, 이것이 진정한 自強主義이다. 自強의 뜻은 실로 여기에서 취한 것이요 南方之強과 北方之強<sup>25)</sup>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날래고 사나운 모습을 강하다고 하는 것이 어찌 오늘날의 自強의 眞義이겠는가. 波蘭, 埃及, 安南, 義士英男과 같이 단체를 만들어 空拳을 휘두르고 白刃을 무릅쓰며 피와 눈물을 뿌리고 砲煙彈雨에 헛되이 죽는 것은 우리의 自強의 本意가 아니다. 그와 같은 것은 一時血氣의 勇強일 뿐이다. —하락—<sup>26)</sup>”

이처럼 애국계몽 운동에서는 직접적인 무력적 투쟁을 헛된 것으로, 나아가서 국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해했었다.

이들은 힘과 近代文明의 이중적 방식으로 감행해 오는 계몽주의의 침략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의 힘에 대한 대항력을 계몽 운동을 통한 힘의 양성을 통해 기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1895년 이후 일본의 침략은 본격화하여 당시 조선의 상황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으나, 그들의 침략 방식은 政治, 文化, 經濟, 軍事 등 모든 부문에서 국내의 친일 관료집단과의 결탁 속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침략을 직접적인 생활의 위협 속에서 감지한 대다수 民衆들의 위기 의식은 抽象적인 국가의식 속으로부터 느낀 상층 지식인들의 위기 의식보다 日本 帝國主義 침략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으며, 민중들은 지식인들이 생각한 정도로 우매한 상태에만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러

25) 中庸 9章 子路의 물음에 대한 孔子의 대답으로 나눔.

26) 張志淵, ‘自強主義’, 「西友學會月報」 제2호 1907. 1. (번역은 新東亞 81년 1월호에 의한).

한 민중의 위기의식과 政治意識은 部分的으로 문학형식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sup>27)</sup>

그러나 애국계몽운동 지도자들의 의식은 民衆의 우위에서 지도자적 태도를 견지하여, 현실적 위기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民衆과 共同體의 연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국가 의식은 민중의 삶의 조건에 토대를 둔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국가의식 속에서 민중의 삶을 생각하는 經世學的 태도가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적 계몽주의는 前 時代의 비판적 儒家들에 의해 생산된 夢遊錄, 寓話 등의 文學形式을 수용하여 新聞의 저널리즘과 史學 등을 유착시켜 本考의 대상 作品들을 生産했을 뿐 아니라, 영웅주의적 民族主義 史觀으로 발전하여 開化期에 널리 생산된 史書, 영웅의 전기. 그리고 외국 독립운동사 및 영웅전의 번역을 낳았다. 이들은 나아가서 「꿈하늘」, 「몽배금태조」 등의 영웅주의적 몽유록과 후에 한편으로는 民族主義史觀의 ‘조선심’ ‘조선 일’ 등으로, 한편으로는 단재의 「용과 용의 대결전」이라는 몽유록에 나타나는 民衆 직접혁명에 의한 독립의 쟁취라는 민중적 사관의 문학적 표현으로 발전한다.

## IV. 作品 分析

### 1. 夢遊錄

이 시대에 생산된 夢遊錄은 前 時代의 한문으로 기록된 몽유록과 형식상 동일한 계통으로 볼 수 있다. 朝鮮時代의 한문으로 표기된 叙事文學 가운데서 몽유록 형식의 문학은 文學의 질과 양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조선시대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을 徐大錫 교수는, “夢遊錄은 歷史的 事實에 대한 既存 知識의 토대 위에서 작품세계가 構

27) 본고에서 다룬 토론증 街談巷說 형식의 토론동이 이에 해당되고, 최근에 崔元植의 연구에 따르면 銀世界가 판소리에서 유래한다고 하는데, 은세계의 앞부분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成되었다. 따라서 夢遊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作品에 수용된 事實에 대한 知識이 먼저 필요하다”<sup>28)</sup>라고 하여 夢遊錄이 그것을 생산해낸 시대에 대한 관계가 여타 문학 장르의 虛構性 우위에 비해 보다 직접적인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장르적 특성은 夢遊錄을 생산해낸 시대 및 작자의 세계관을 검토해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元生夢遊錄」의 작자인 金時習 또는 林梯<sup>29)</sup>는 모두 시대적인 현실의 모순을 보고서 그것에 동화되지 않고 그것을 비판하며 그 거대한 時代의 힘에 눌려 방황한 典型的인 朝鮮의 비판적 지식인이었다. 즉 前者는 건국 공신들이 이른바 기성 훈구파 세력에 감연히 육박하여 가는 신흥 사립파의 동반자적인 전위분자로서, 굶힐 줄 모르는 정치적 지식인으로서 一大의 정변인 수양의 구테타인 시대적 현실을 보고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여 일생을 유랑으로 보냈는데<sup>30)</sup> 이러한 시대적 현실에 대한 비판과 강개가 「元生夢遊錄」이라는 文學형식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또한 「大觀齋夢遊錄」의 작자 沈義도 벼슬을 버리고 疾人으로 자처하여 士禍의 참변을 모면한 사람으로서 理想的 文章王國을 「大觀齋夢遊錄」에서 그렸으며, 또한 병자호란시 江都 失陷이라는 歷史的 사실 속에서 남편과 아들인 관료들의 무능과 타락을 비판한 「江都夢遊錄」도 또한 時代 현실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이처럼 夢遊錄은 歷史的 현실 문제에 직면한 지식인들이 그 모순을 비판하고 새로운 方向性을 暗示 또는 提示하여 주었던 데, 그 장르적 특성을 지녔다.

그러면 이처럼 역사적 현실을 반영한 夢遊錄이 현실세계와 夢遊세계라는 두 세계를 설정함으로써 문학으로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夢遊錄의 문학적 의미는 그것이 작자에게서 차지하는 의미와

28) 徐大錫, 「夢遊錄의 장르적 성격과 文學史的 의미」(한국학 논집 3집) 제명대 출판사.

29) 張德順, 「國文學 通論」『夢遊錄小考』신구문화사, 1960, pp. 282~306.

30) 정병욱, 「한국 고전의 계인식」『김시습 연구』홍성사 1979 p. 20.

동일한 것이다.

몽유록 성립의 기본인 꿈의 설정은 작자와 현실과의 대립 관계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대립관계는 그것을 해소할수 있는 또다른 세계를 요청한다는 데서 몽유세계 설정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몽유세계의 설정은 기본적인 인간 心性의 욕구와 경험적 현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原初的인 방법이기에 때문에 自古로 叙事的 모티프의 원천이 되어 왔고 虛構的 플롯의 출발에 많은 영향을 주어온 것이다.<sup>31)</sup>

그러나 夢者의 현실과의 대립관계는 몽유세계의 설정만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몽유세계의 구조는 현실세계 문제의 미래적 비전에 대한 作者의 世界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즉 현실과 대립관계를 갖는 夢者의 현실적 모순에 대한 태도, 현실적 모순의 강도와 그것의 역사적 보편성 여하, 거기에 따르는 미래에의 전망에 따라 몽중세계의 구조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몽중세계의 구조에 따라 꿈을 매개로 하는 문학 형식은 먼저 夢遊錄과 夢字類 小說로 나눌 수 있다.

먼저 夢字類 小說 즉 『九雲夢』 『玉樓夢』 등의 作品은 그것에서 다루고 있는 現實的 모순이 人間의 범주를 벗어난 초월적이고 운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夢中世界를 매개항으로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人間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임을 자각하고, 人間世界의 덧없음과 허무함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때 몽중세계는 현실 세계와 완전히 대등한 구조인 완결된 叙事構造를 갖는다. 그리고 몽중세계가 이러한 완결된 구조를 갖고, 몽유인물의 체험이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적 성격을 띄면서도 현실에서보다 질적으로 앞서 있을 때, 몽중세계는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는 매개항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체념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체념은 궁극적으로 현실 긍정의

31) 李在先, '開化期的 憂國小說' 「開化期的 憂國文學」 신구문고, 1974.

세계관으로 유도된다.

西浦가 지배원리에 충실한 상층귀족으로서 『九雲夢』을 쓴 것이 夢字類小說 구조와 현실긍정적 세계관 사이에 있는 관계를 증명해 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夢字類小說이 대체로 역사적 현실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를 다루고, 그것의 世界觀的 기반이 현실 긍정적이던데 반해, 몽유록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되며, 현실적 모순이 제거되고 현실이 개조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 현실 비판적 세계관을 갖는다.

여기에서 꿈, 즉 몽중세계는 독자에게 현실적 모순을 인식케 하고, 그것이 극복되어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비판의식을 제공해 주는 현실적 모순의 변증법적 매개항(Dialektische Mittel)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매개항은 또한 그것의 실현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그 구체성의 정도를 달리한다. 몽유세계의 구조는 따라서 이러한 구체(Konkrete)와 추상(Abstrakte)의 간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띄게 된다. 대부분 조선 시대의 몽유록이 그것을 생산해낸 시대적 모순과 그것을 認識하는 夢者의 현실적 힘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夢者의 世界觀이 현실의 보편적 세계관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한 작자는 몽중 세계에서 그것을 이룩하기를 회구하며, 현실세계에서는 극도로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金時習, 林梯, 沈義 등은 당시의 지배적인 거대한 힘에서 벗어난 주변적 人物(marginal man)로서, 自己 疎外를 철저하게 맞본 비판적 지식인이었다. 몽유록은 바로 이러한 당시의 비판적 지식인의 세계관을 文學的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江都夢遊錄」의 경우도 江都 失陷時에 節死한 十四名의 부인들의 망령이 회합하여 조정 관료로서 불충 무능했던 남편과 자식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몽유세계의 구성이 강개와 비판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병자호란이라는 거대한 압박과 그것을 극복

할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여건의 간극이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몽유록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갖지 못한 비판적 지식인의 문학이었다. 그러나 개화기의 몽유록은 이러한 비판의 영역에만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다.

개화기는 조선 전기나 중기처럼 현실의 지배 원리가 不動的으로 고정되었던 때가 아니다. 안정되었던 왕조적 지배원리의 모순이 드러나서, 이 당시까지 현실을 지배하고 있던 양반중심의 세계관이 해체되고, 당장 民族社會의 生存權을 보존하기 위한 또 다른 지배 원리를 수립해야 하는 時期이었기 때문에, 개화기의 夢遊錄은 소외되어 있는 知識人의 비판 문학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시대적 질서를 건설하려는 어떤 계층의 시대의지의 文學的 表現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개화기의 몽유록은 세가지의 명제를 요청받는다.

즉 현실의 문제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명제 아래 1) 현실의 위기를 생성시킨 민족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모순을 비판하는 것과 2) 위기의식의 직접적인 조성자인 帝國主義의 실상과 意味 파악 3) 전체적인 위기 극복의 방책 제시가 그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이고도 급박한 현실적 요청은 夢遊錄의 형식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文學形式이 客觀化의 방식을 통해서 현실적 명제에 대한 대답을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作家의 客觀化 능력의 부족과 현실적 강제 및 시간의 압박이라는 두가지 요소는 文學形式의 현실적 명제에 대한 대답을 추상적인 것으로 남아 있게 하였다.

이러한 文學形式의 진개를 開化期의 夢遊錄은 a. 討論 b. 알레고리의 두 요소를 통해서 수행한다.

이 두 요소는 하나의 夢遊錄에서 補完的으로 사용되는 것이 一般的이나, 두 요소중 한 요소만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첫째, 討論의 요소가 주로 쓰여질 때는 현실적 모순의 강력한 비판과 대안의 제시를 夢者가 직접 討論에 참여함으로써 수행한다. 이때 꿈은 다만 現實的 夢界를 客觀的으로 볼 수 있도록 심미적 거리를 유지시켜 주는 Set의 구실만을 수행하고 몽중세계에서 현실적 夢界가 직접 노출되고 거론된다.

둘째, 알레고리적 제시가 주인공 夢遊錄은 몽유세계 內의 알레고리 자체가 형식적 완결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夢者는 몽유세계 내에서는 관객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몽유록의 알레고리적 제시는 朝鮮時代의 夢字類 小說과 몽중세계가 형식적 완결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몽자류 소설이 몽중세계 자체의 완결성을 증시하는 반면, 몽유록은 알레고리적 특성을 강조하여 현실세계의 구체적 夢界와 대응관계를 갖고, 현실적 문제 해결에 그 본래적인 목적을 두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알레고리적 몽유록은 바로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허구적 형상인 알레고리를 도입하는 방편으로 꿈을 원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대응되는 몽중의 알레고리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각몽의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討論, 알레고리만 별개적으로 사용하는 몽유록은 다음에 설명할 討論, 寓話와 同一한 형식이다. 다만 토론의 무대, 또는 알레고리의 도입 무대를 꿈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외형적인 차이만을 가질 뿐이다.

셋째, 이러한 토론과 알레고리를 혼용한 몽유록을 들 수 있다. 이 형식은 주로 알레고리적 요소들 사용하나, 그 자체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夢遊者가 알레고리에 간섭함으로써 완성된다. 다시 말하면 夢遊者가 꿈속에서 알레고리를 구성하는 事物 또는 動物과 대화할 하거나,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몽유록이 완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의 몽유록은 몽유록 형식으로서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즉 인간과 動物 또는 事物과의 交遊는 현실세계를 무대로 한

일반 서사문학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식에서 몽중세계와 현실과의 매개체인 몽유자가 알레고리에 개입한다는 사실은 알레고리가 알레고리로 남아있지 않고, 몽중세계에서 현실적 명제로 해석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몽유록 일반의 현실적 명제로의 환원이 각몽 후에 일어남과 달리, 여기에서는 몽중세계 속에서 이미 현실적 명제로의 환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첫째의 討論을 주로 하는 형식의 例를 하나 들어 보면 「蜜亞生」이라고 記者가 밝혀져 있는<sup>32)</sup> 光武 4年 10月 17日의 奇書난에

生이 獨宿 秋齋러니 夢見 無何先生하고 討論 古今 治亂이라가

라고 入夢하여 夢者와 無何先生이 討論을 전개하여, 泰西人은 中國처럼 孔子와 같이 뛰어난 先人을 갖지 않았으나 前時代人이 이룩하여 놓은 업적을 후세인이,

必究而達文호야 竊附己意호야 必慾透前人之所未透하며 必慾發 前人之所未發호야 今日 開一智호고 明日 進一武호야 必窮其 粵源而 不止

하여 오늘날과 같은 文明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며, 中國은 先人의 지혜가 밝았으나,

初不有 開進之心호고 每以 慕古之心으로 只自敬古호야 一規一矩와 一繩一墨을 不敢違拗호야 凡於一事 一物之 行爲가 每多 不及於古而一未有勝於古者로더

라고 하여 오늘날 中國人이 쇠퇴하여 自強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依人하려는 마음만을 갖는 상황이 된 것은 復古의이며 進步의인 태도를 갖지 않은 것이 누적되어 그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主張은 記者가 당시 東西洋의 客觀的 상황의 차이를 歷史的인 觀點에서 파악하여 東洋의 政體적인 儒敎史觀과 유교적 세계관 및 西洋의 進化論

32) 皇城新聞 光武 4年 10월 17일 논설.

의인 發展史觀 및 실용적 세계관을 대비시킴으로써, 당시 동양사회 전반이 가졌던 식민지적 위기가 여기에서 기인되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와같이 討論의 형식을 취하는 몽유록은 어떠한 사건의 전개가 아니라 정면적인 의견의 개진이 主調이다. 즉, 당시 상황적 모순의 객관적 원인에 대한 정면적인 分析과 비판은 元生夢遊錄에서의 강개시로 일관하는 태도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둘째의 알레고리를 주로하는 전형적인 例로 光武 3年 3月 6日의 「笑山子가 寄送惺惺夢記」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의 꿈에 惺惺主人翁을 만나 華胥古都 無何依郷에 따라가서 그곳의 治道를 구경하고 ‘先正其心 先誠其意’를 깨닫는다. 여기에서 夢遊者는 몽중세계에 개입하지 않고 그것을 구경하는 것으로 그친다.

세째의 討論과 Allegorie를 혼유한 형식의 한 예로 光武 3年 8月 19日의 論說에,<sup>33)</sup>

‘余 | 昨夕에 酒를 大被하고 枕上에 昏到하야 世間 甲子를 渾忘하고 夢中天地에 偶遊하더니 一處를 到한즉 無邊大海가 眼前을 當하얏는데 耶榆一翁이 如葉片舟를 津頭에 泊하고 行人을 濟渡하느니라 余 | 舟子를 招하야 問曰 北海는 何海며 此를 渡하면 郡處로 去하나뇨 舟子 | 答曰 此海는 宦海오 比津은 迷津이니 名利場으로 去하느니라”

하고 시작하여 벼슬길의 유혹을 Allegorie적으로 피력하여 당시 사회의 관료지배층의 타락을 경계하고 비판한다.

또 光武 3年 1月 16日의 論說에서도 夢中世界에서 江南千里를 行하다가 路傍에서 斥侯官인 張承을 만나 장승과 몽유자와의 대화를 통해 당시의 군인들이 직무를 이탈하며 權門에 출입하며 陞差하는 예가 허다함을 비판하며, 군인상을 장승의 예를 통해 開進한다.

前作品에서의 宦海, 迷津 名利場 등은 현실세계에서의 官路, 官路의 험난함과 혼란, 그 세계의 허황된 특성등을 일대일로 대치시킨 것이다.

33) 皇城新聞 광무 3년 8월 19일 논설.

다만 그것들의 意味를 객관화하기 위한 알레고리의 형식을 취했을 따름이다. 그리고 後作品의 張承은 가장 모범적인 군인상을 의미한다. 그러한 모범과 대비되는 당시 현실에서의 군인들의 태도가 그 모범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승과 몽유자와의 대화는 몽유세계의 알레고리를 직접적인 현실의 의미로 해석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모든 형식의 몽유록은 모두 다 入夢과 覺夢이라는 몽유세계 설정의 형식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虛構의 文學임을 나타낸다.

① 昨夜의 寒風이 吹雪에 窓紙가 飄鳴음이 寒燈孤客이 正히 堪기 難한지라.  
何凍隱兒가다가 更深就睡야 精神이 曠籠호대 江南千里를 片時에 行기더니.

—입몽—

張이 張且不答하고 余亦促裝기었더니 遠鷄一聲에 覺之하니 乃夢기더라.

—각몽—

광무 3년 1월 16일

② 余 四十平生에 所夢이 無기야 當初 夢字의 義가 何義를 據하는지 知치 못기는고로 邵鄴爐槐安圖을 호가 好事者의 筆端弄談으로 歸기고 感矢舊人이 夜來 夢事를 說하면 以風 漢으로 責기었더니, 昨夜의 書案을 對기야 太古事를 閱覽기다가 困眼을 不勝기야 短枕을 暫倚기었더니 昏迷호중에 闒然 一身이 定處가 無기야……

—입몽—

千秋 遠觀翁에 笑料를 供호이라 기고長缺而覺하니 旭日身窓기더라

—각몽—

광무 2년 10월 14일

이처럼 개화기의 몽유록의 入夢과 각몽의 몽중세계 설정 형식은 거의 동일하고 前時代의 몽유록과도 거의 같은 형식을 갖고 있다.

夢遊錄이 이러한 입몽과 각몽의 몽중세계 설정 방법과 알레고리와 討論이라는 표현 기교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한 一般의으로 敘事文學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人物의 敘事世界內에서의 역할이 기본이 되는 것처럼, 夢遊錄도 몽유세계 내에서의 人物의 行動을 통해 그 몽유세계 구조가 결정된다.

이러한 夢遊世界內의 人物의 行動에 따라 夢遊錄의 구조를 유형별로

분류할 때 1) 傍觀者型 2) 參與者型 3) 主人公型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sup>34)</sup>

첫번째의 형식은 몽중세계에서 夢遊者는 理想的 혹은 타락한 몽중세계를 편람하여 몽중세계를 몽유자의 눈을 통해 독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서 현실의 이상, 또는 현실의 비관적 모습을 認知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몽유록은 前記한 夢遊錄의 기교중에서 알레고리를 주로 사용한다. 즉 前記한 笑山子가 「寄送惺惺夢記」과 같은 경우가 그 한 예이다.

둘째의 參與者型은 몽유자가 몽중세계에 들어가서 몽중세계 내의 사건에 개입함으로써 몽중세계의 질서가 곧바로 몽유자의 입을 통해 현실적으로 해석되는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형식의 表現 기교는 討論이 주가 되는 경우와 討論과 알레고리가 혼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前記한 「蜜亞生 寄書」 혹은 張承의 알레고리가 그러한 예이다.

세째로 主人公型을 상정할 수 있는데 朝鮮時代의 沈義가 지은 大觀齋 夢遊錄과 같은 형식이다. 여기에서는 몽유자 자신이 몽중세계 내 사건의 핵심부에 서서 그 사건을 이끌어나감으로써, 현실 문제를 客觀的 형상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은 다른 몽유록의 형식보다 叙事的 구조가 완벽하게 짜여지는 형식이다.

이러한 몽중세계에서 몽유자의 행위를 통해볼 때 開化期에는 1, 2의 형식이 주이고 3의 형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開化期 初期에 叙事的 구조를 완벽하게 갖춘 叙事文學을 찾아보기 힘든 것과 同一한 이유를 갖는다.

이는 다시 말해서 개화기 作家層의 世界觀과의 관련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함을 말한다. 즉 현실적 명제에 대한 작가들의 계몽적 세계관, 그리고 현실적 명제에 대한 구체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叙事化라는 客觀化 능력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던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34) 徐大錫, 앞의 논문에서의 분류를 따랐다.

이러한 작가의식의 미비와 그들의 세계관의 한계를 나타내 주는 敘事化 능력의 부족은 이들 작가군에 속하는 申采浩가 1925년 말에 와서야 「용과 용의 대결전」이라는 몽유록에서 민중의 직접 투쟁이라는 현실적 명제를 해결할 수 있는 民族運動 방식을 터득함으로써 극복한 것을 볼 수 있다.

## 2. 討論<sup>35)</sup>

既存의 討論에 관한 研究는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된 「향로방문의성이라」, 「향각담화」, 「쇼경과안증방이문답」, 「車夫誤解」, 「시사문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sup>36)</sup>

이들은 1906년 이후 신문에 小說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것들인데, 이들 외에도 논설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글 중 상당수가 이들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었다. 이들은 論說이라는 이름으로 發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文學研究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지만, 이들도 前記한 作品에 뒤지지 않게 敘事的 특징을 띠고, 문학적 표현기교를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論說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文學研究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文學 개념의 미분화 상태에서 사용된 명칭에 구애 받지 않고, 개개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分析함으로써 文學的 意味를 추출하고 해석해낼 때, 文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討論은 量的으로 훨씬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討論 형식의 文學을 형성시킨 직접적 토대인 討論과 연설은 개화기의 主流를 이룬 經世의 方法이었다. 帝國主義 침략이 本格化된 1890년대 후반에 개화운동은 종래의 혁신적 소수파에 의한 개혁운동과는 달리 독립신문, 皇城新聞 등의 저널리즘과 각종의 교육시설 및 만민공동

35) 金重河는 「開化期の 討論體 小說研究」(관악어문연구 3집)에서 토론體 소설이라고 하였으나, 필자는 장르구분을 미루어 놓고 討論이라고 명명했다.

36) 이재선, 홍일식 등의 업적이 두드러지다.

회 등의 군중집회를 통해 대규모적인 대중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이같은 대중운동은 비록 都市中心의이라는 지역적 제한은 있었지만 한 단계 진전된 民族運動의 모습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대중운동 단계에서 經世의 思想을 피력하는 유효한 방법으로 연설과 토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개화기에는 이러한 연설과 토론이 곳곳에서 행해졌다. 그리고,

기지에서 나는 公衆講演 公衆討論. 日刊新聞 기타 당시 利用할수있는 教育施設等에 의해서 朝鮮의 平民教育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sup>37)</sup>

라고 개화기 民權思想家인 徐載弼이 述回하고 있듯이 연설, 토론, 교육 시설 및 新聞에 의해서 啓蒙運動이 수행되었다. 開化期 討論型 文學은 이러한 時代의 風조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토론 연설 만연의 풍조와 文學과의 관계를 例證하는 人物로 安國善을 들 수 있다. 그는 「演說方法」, 「금수회의록」을 著述하였는데 「演說方法」은 泰西, 泰東의 연설 方法, 歷史 연설가들의 태도 학식문제 등을 다루었고 이 연설방법을 적용하여 「금수회의록」이란 문학작품을 썼던 것이다.<sup>38)</sup>

이렇듯 시대의 풍조 속에서 발생된 討論은 叙事的 性格이 극히 축소되어 일견 叙事文學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사건을 갖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叙事文學의 구성요건을 話者(Story teller)와 이야기(Story)의 둘로 볼때, 討論에서 이야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討論의 무대설정 과정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의 무대설정이라는 단순한 경위는 거의 모든 討論形式에 同一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討論 設定의 例를 들어 보면,

1) 有 一友人이 偶過於三濟之洞 綠林之間 白石之際 하더니 數三個 鄉生員 林學究가 略干冠童을 携率하고 消暢次로 出來런지 酒一床 苾一般을 石上에 排置하고 一盃一盃 復一盃로 辭興이 陶陶하야 四十里 方言으로 酬唱이 爛漫호데

37) 姜在彥, 「近代朝鮮의 變革思想」 日本 評論社. 1973 p. 157.

38) 김윤식, 김현, 「한국 문학사」 일지사. 1976 pp. 103~104.

一厥曰……하락. (도입.)

술이나 먹어보세 汗盡豆盡 三四盡을 爛醉토록 痛飲하고 呵呵大笑傍若無人하  
더라 (결말.) 황성신문 광무 7년 8월 15일

2) 滄浪漁者 罷釣歸來할 時에 漁釜을 廂下에 掛하고 柳陰路曲으로 青○을 向  
하야 自行 自止하며 淸秋를 玩賞하더니 碧山老樵를 逢하니 短鑊을 荷하고 薪을  
賣하고 歸來하는지라. 二人이 一중략— 三人者 仰天而 長嘯하고 俯地而 太息하  
야 慨賞以懷하고 歌甚於 哭하다가 三人而 相視而 笑하고 滄浪이 曰— 도입.

…說罷에 當墟人이 大白을 更進하야 一盃—盃 復—盃로 酩酊이 醉후에 三  
人이 出門相送호세 於焉 新月이 初上이라 滄浪者이 歌를 發하고 碧山은 笑를  
作하여 帶月而歸하더라. 결말.

위에서 본 것처럼 討論의 도입과 결말은 千篇일뿐적이나, 유형이 둘  
로 나누어진다. 즉 위의 例 1에서처럼 討論의 記述者가 우연히 거리에  
나섰다가 世間人들이 時事問題를 討論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기  
술하는 형식을 먼 街談巷說形式과 위의 例 2에서 처럼 記述者가 滄浪者  
碧山老樵 當墟人이라는 허구적 人物을 내세워 討論을 記述者의 現實의  
인 입장에서 진행시키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형식의 차이는 먼저 ‘世間人의 목소리’인가 ‘記者의  
목소리’인가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다. 즉 街談巷說形式의 討論은 ‘世間  
人의 목소리’를 빌어서 현실에서 發生하는 문제를 비판하고, 허구적 討  
論形式은 직접적인 記者의 목소리로 현실적 문제의 비판과 아울러 經世  
的 正論을 피력한다.

街談巷說 形式은 구체적인 世간의 生活 속에서 발생하는 현실문제를  
生活人의 눈으로 보고 그 느낌을 피력하기 때문에 一次的으로 言語구사  
가 사실적이다. 世간의 투박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치는, 그리고 몇마디  
로 현실적 도수를 예리하게 찌르는 어휘들이 자유자재로 구사된다. 그  
리고 日常人들과는 거리감을 갖게하는 政治, 社會, 經濟의 대명제들이  
生活 속에 어떠한 식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예리하게 포  
착한다.

즉 이들 작품 속에서는 世間的 個個人的 삶을 個人的 삶이라는 좁은 공간에 안주시키지 않고, 전체 사회의 맥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강한 정치 의식을 表現하고 있는 것이다.

광무 5년 4월 6일의 論說은,

余適 生於南郊야 歇脚野店이러니 偶有熙見이 可駭○○故로 歸記之호노라

로 시작하여 수삼인이 술집에서 수작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기록하는 것인데, 世間인들이 개화에 대한 소박한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하면서도, 개화의 문제점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날카롭게 포착하여 예리한 비판을 보여준다.

第一 可笑로운 者는 開化호다는 作者일네 學徒의 卒業이란 거슨 솔심어 亭子요, 開明인지 大明인지 근 십년을 목도하되 한일 한거 무어신가 시벽달 보자고 초흔부터 기다림일세

라고 하여 甲午改革 이후 친일관료 집단에 의해 수행된 開化 政策이 民衆의 삶의 조건을 改善하지 못함을 논박한다. 또한 本格的으로 감행되는 日本帝國主義 세력에 대항하기에는 自強의 제몽주의 방식이 적절하지 못한 '시벽달 보자고 초흔부터 기다리는 격'임을 주장한다.

西洋國法을 밤낮 모방한다 호니 황새 따라가다 뱀새 다리가 찢어진다

하여 外型的 西歐化가 제국주의 침략세력에 대하여 국권을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님을 밝히며 오히려 그것이 침략세력에게 침략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開化호 뒤는 인심이 사나움고 世態가 잘못되야 곡식이란 곡식은 화륜선으로 다 빠지고 백동전만 대구 지어 物價는 高勝하니 萬人間이 死甍이라

고 하여 帝國主義침략의 실상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좀 늦게 資本主義 국가로 일어선 日本은 資本의 원시적 축적에 의한

商業 産業資本主義에로의 이행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仲介무역을 통해 産業資本으로 전환을 가졌던 파행적 경제구조를 가졌었다. 이러한 日本의 파행적 구조의 補完은 필연적으로 朝鮮에 있어서의 악랄한 식민지 수탈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즉 그들은 매관 관료집단을 통해 新貨(백동전)를 남발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그들의 중개무역품이 대종을 이루는 상품가를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는 한편, 곡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싼값으로 곡물을 대거 실어 냈다. 이러한 상품 시장과 식량 공급 기지화 정책은 民衆들의 삶의 토대인 국민경제 구조를 파괴하여 극심한 기아상태로 民衆을 몰아넣었다. 또한 이러한 이들의 植民地 政策은 필연적으로 自生的으로 성장하여온 民族資本을 말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위에서는 이러한 植民地 정책과 형식적 開化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西洋 國인이 萬國公法을 前陪로 니세더니 一朝에 암치 떡다귀 불개미 덩비  
듯 흘다하니 可謂 信斧新足 아닌가

라고 하여 帝國主義 國家들이 내세웠던 허위적 코스모폴리탄니즘에 숨겨 있는 침략적 의도를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다. 광무 7년 8월 15일의 「其渠是 何物也」라는 論說도 이와 같은 形式이다.

開化 이래 金貨, 銀貨, 銅貨, 韓貨, 日貨 등 무수한 종류의 돈이 남발되어 전통적인 풍속 세대가 붕괴되고 돈으로 환산되어 통용되는 배급주의적 세대를 비판하고 풍자한다.

이것이 開貨인가 世上事 別 開貨도 必하리니 貴貨 樂貨도 있거니와 辱貨 殺貨도 허다하네

라고 하여 開化와 開貨라는 말이 동음이의어인 것을 빗대어 세간의 開化의 意味를 辱貨, 殺貨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미 상당히 연구된 大韓每日申報의 「소경과안증방이 문답」, 「車夫誤

解]도 이 街談巷說形式에 속한다.

이러한 형식은 대부분 풍자적 語法을 사용한다. ‘술심이 享子요, 시벽달 보고 기다림일세’, ‘황새 따라가다 뱀새다리 찢어진다’ 등의 투박한 비유 또는 속담을 써서 문제의 핵심을 찌르기도 하고, 開貨 貴貨 殺貨 등의 풍자적 어휘는 소박한 풍정 속에 깃든 예리함을 내보이기도 한다.

또 「車夫誤解」에서의 회화적 오해는 풍자 기법의 첨단적 방식이다. 즉 정부조직을 ‘조직’으로 오해한 인력거군은 다시 정부를 ‘잔다’라는 말에서 ‘그만치 물이 몬나게 짜스죽 정부 조직은 잘된 모양이라’고 하여, 다시 오해를 함으로써 회화를 연출한다. 즉 政治的인 大命題를 自己의 生活 범주의 영역으로 해석하여 오해를 일으킴으로써 당시의 정치와 民衆生活과의 관계를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街談巷談 형식과 달리 허구적 인물을 등장시켜 현실문제를 正論的으로 討論케 하는 형식은 여러 사람이 무질서하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시사문제에 대해 바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바른 견해를 전개하는 방식, 또는 어떤 문제에 대립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토론에 3자가 끼어 양쪽을 비판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형식 등 토론 방법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가담항설 형식과의 근본적 차이는 가담항설이 비판문학이라면 이러한 형식은 의견 전개의 문학이라 할수 있는데서 찾아진다.

한 例로 前記한 「漁樵問答」을 分析해보면,

漁浪者가 西勢가 東漸하기로 我의 魚業이야 今日로 始하여 다만, 利器를 鹽進하며 一中略—魚業도 如此히 發達할 지니와 農之家의 發達도 不遠할지오 買之家의 發達도 不遠할지오 工之家의 發達도 有時하리니 一中略—利用厚生호는 道에 無憾할것이오 開物成收하는 事에 曲盡하다 할지니 一하략—

라고 하여 利器를 발달시키면 모든 산업이 발달하고 백성의 삶이 윤택해진다고 하여 西歐文物을 수입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碧山老樵

는 甲午改革 이후의 관료들이 百姓의 소리를 듣지 않고 唯我獨存의으로 開化政策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한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當墟者는

今之 求新者는 舊章을 變革하야 百弊를 盡滅코저 唯日孜孜호더 弊未祛而毀隨호고 治未臻而禍生호니 徒亂舊國治法이요. 今之守舊者는 失權으로 怒하야 大器를 不忍하고 投鼠를 能行하나 鼠未撲而器裂하나니 守之舊가 何有乎리오

라고 하여 開化主義와 守舊主義가 모두 국가의 운명을 생각지 않고 主義主張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국가를 어지럽혔다고 비판하고, 국가의 운명을 위해서 擇善固執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형식을 前記한 街談巷說形式과 비교할 때, 현실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抽象的인 것을 볼 수 있다. 즉 현실적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開化, 守舊, 國家 등이 概念的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討論의 形成은 개화기 계몽운동의 방편이었던 연설과 토론을 文學的으로 수용하는 同時에 이들 討論은 前代文學에서 討論 형식의 전통을 이어 받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즉 街談巷說形式의 풍자적 성격에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要路院夜話記」, 「虎叱」을 들 수 있다. 즉 空間的 배경을 要路院의 한 客舍로 고정시키고 京客과 鄉客의 대화 속에서 향객의 뛰어난 재지와 話法을 통해 오만무례한 경객을 면박함으로써 당시 양반들의 허식과 허례를 통렬히 비판한 요로원 야화기의 풍자성, 그리고 뚱뚱에 빠진 北郭先生을 호랑이가 꾸짖는 장면에서 전개되는 호랑이의 풍자적 요설 등은 바로 開化期의 비판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街談巷說式 討論’과 文學의 전통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면적인 의견전개의 토론 형식은 조선시대의 理論的인 학술 논쟁에 그 연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학술 논쟁은 대부분 편지를 써서 문답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개화기의 토론체 논설중 「開化說」이라는 것이 3일에 걸쳐 연재되자 「解開化說」이라는 논설이 3일에 걸쳐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조선시대의 대 성리학자이던 퇴계는 「東湖問答」에서 그의 治道論을 東湖人과 客의 問答形式을 통해 전개하였다. 이것은 개화기의 정면적의 전전개 형식의 토론과 거의 같은 형식이다.

### 3. 寓話

寓話는 小說과 표리 관계에 있는 敘事文學 장르이다. 우화나 소설은 모두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행해지는 行爲者들의 行爲를 통해 現實構造를 제시한다. 그러나 우화와 小說이 제시하는 현실구조의 폭은 상이하다. 小說의 人物은 世界와 그와의 총체적인 관계 속에서 自我의 성숙 과정을 통해 客觀化된 행동양식과 총체적인 현실구조를 내보인다. 이처럼 小說이 내보이는 현실구조의 폭이 총체적이라면 寓話가 내보이는 현실구조의 폭은 平面的이다. 寓話에서 행동하는 人物에게는 自我의 성숙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즉 우화의 人物은 종합적인 세계 내에서 自身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作者가 設定한 一面的인 행위 양식을 통해 현실구조를 一義的으로 해석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寓話는 現實世界의 질서가 총체적인 人間行爲를 부정하고 억압하는 時代的 狀況 속에서 發生한다. 즉 前記한 바 朝鮮時代의 비판적 知識人 文學으로서 알레고리 문학이 主流를 차지하였던 것도 유교적 지배원리의 획일적 강요라는 王朝의 時代 狀況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寓話는 비판 혹은 교훈의 양면성을 띠게 된다. 즉 강요된 지배원리의 모순을 認識한 지식인의 입장에서 풍자와 야유의 목소리로 現實을 文學的으로 재구성했을 때 비판적 우화가 되고, 강력한 현실의 지배원리에 충실한 그리고 그러한 현실원리에 의해 기득권을 보장받는 作家가 그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사소하고 지엽적인 日常生活의 모랄을 表現했을 때 교훈적 우화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寓話의 양면적 기능 때문에 中央集權의인 강력한 王朝體制인 朝鮮時代に 우화나, 골계는 知識人인 양반문학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즉 朝鮮時代に 無數히 생산된 雜錄類, 笑話集, 野談集 속에 실려있는

우화, 골계 등이 그것이다.

朝鮮前期에 생산된 우화, 골계들이 대부분 교훈적인 것이라면 조선 후기에 생산된 것들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모순에 대한 부분적 비판의 내용을 담은 것들이다. 그 대표적인 例로 燕巖의 虎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남주인공 北郭先生과 여주인공 東里子를 등장시켜 당시 사회의 부패상을 여지없이 폭로시키고 있다. 儒學의 大家와 貞節夫人을 내세워 가식에 가득찬 양반 사회의 지꺼기를 범의 입을 통해 풍자적으로 파헤친다. 이러한 조선후기의 비판적 풍자 정신은 개화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讀虎叱一嘆」이라는 題下에 發表된 開化期의 한 論說에,

朴燕巖集中에 有滑稽文一篇호니 名曰 虎叱이라 悲憤疎宮호야 如有呵罵之聲호며 如有○刺之意호며, 如有怒志之色호며 凜乎若不可犯者호니 可謂千古奇文이로다  
황성신문 광무 5년 6월 29일

라고 하여 ‘呵罵之聲 ○刺之意 怒志之色’을 내세워 千古의 奇文이라고 극구 칭찬하고 있다. 즉 현실적 모순을 보고 가혹하게 꾸짖고 풍자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노함을 참지 못하여 쓴 글이 사실성을 가지고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칭찬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정신은 開化期에 이어받아 개화기의 寓話에도 날카로운 비판정신이 나타난다. 비판의 대상은 封建的 지배원리를 고수하려는 保守的 유교사상과 現實的인 국가의 상황을 무시하고 무비판적으로 西歐的 思想과 文物을 수용하려는 開化主義者, 그리고 帝國主義 세력과 결탁하여 親日的 開化政策을 추진하는 관료집단이다.

「得過且過」라는 寓話는 荷衣生이라는 사람이 여러 곳을 유람하다가 한 곳에 이르러니 눈서리가 몰아치는 아주 좁은 바위 틈에서 寒呼蟲이라는 새가 있어 그와 대화를 하는 形式으로 되어 있다.

荷衣生이 그 새를 보고 그러한 나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연유를 묻자 得過且過라고 대답한다. 그 소리를 듣고 荷衣生이 그 새의 어리석고,

나태하며 용단이 없음을 나무란다. 그러자 寒呼蟲은,

吾는 微物也라 蠶蠶을 不足道也어니와 先生은 人流也어늘 今一國之 得過且過는 曾無一言相實이오 胡乃務憐我一鳥爲也오 君은 誠之者라. 今에 貧弱味野함을 態遷富強文明하며 政治法律을 不能至公正明白하여 強隣觀覩를 不能拒虎親狼顯하며 —하락— 광무 2년 3월 8일 황성신문.

라고 하여 사람인 荷衣生을 오히려 나무란다. 즉 당시의 제국주의 침략 세력인 西歐의 文物에 비할 때 그들의 힘은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文明이 富強하지 못하고 百姓의 삶을 안정시킬수 있는 政治法律의 기강이 흐려져 혼란한 사회 상태를 야기시키고, 또한 침략 의도를 버리지 못하는 제국주의 세력을 구축하지 못함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화의 구조는 「虎叱」의 구조와 동일하다. 즉, 호질에서 범의 입을 빌어 동리자와 북관선생을 비판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寒呼蟲」이라는 새의 입을 빌어 당시의 人間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호질」과 「得過且過」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갖고 있다. 즉 호질에서는 유교적 현실주의와 허위를 비판하는데 비해 「득과차과」에서는 비판에 그치지 않고

吾는 清苦自守하며 去就有常함은 循天翁을 學하며, 陽氣를 從하고 春天에 翱翔함은 從地理를 隨하고 民의 農業을 勸함은 九屬氏를 命하며 蠶省을 歐遂함은 海東靑을 作하여 固盡在我之道할지

라고 하여 새로운 方法論을 제시한다. 이렇게 개화기의 寓話는 비판에서 나아가 당시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開化思想을 피력한다.

光武 3年 2月 8日의 논설에는 북쪽 산의 석굴 속에서 사는 천년 묵은 두꺼비와 남쪽 산 토굴에서 사는 천년 묵은 두꺼비가 서로 만나 얘기하는 형식의 우화가 실려 있다.

북쪽 두꺼비가 「距今 一千年에 歷三十三世 하였는데 後孫인즉 其麗不儼이오 個個 強壯하노라」라고 하여 자손이 번창함을 자랑하자, 남쪽의 두꺼비는 자기네 종족은 자손이 번창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음을 불평한다. 그러자 북쪽 두꺼비는 자기네 굴보다 따뜻하고, 또 흙으로

되어 있어 살기 좋은 곳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된 이유는 ‘天下 萬物の 凡欲衛生者는 반드시 動止를 隨時하며 屈伸을 順序하나니’라고 하여 모든 만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활동하고 경지하는 것을 이치에 맞게 해야 하는데 남쪽 두꺼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

그러자 남쪽 두꺼비는 禮記와 歷書를 읽어 움직임에 한치도 어그러지지 않고 행동했다고 대답한다. 이에,

子雖讀禮나 未免徒能이오 子雖量時나 不知度勢로다, 如是하고야 엇지 凍死之患과 病寒之危를 免하며 엇지 後昆의 번창하기를 바라리오.

라고 나무래어, 남쪽 굴은 북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겨울이 일찍 오고 봄이 늦게 오니 歷書를 그대로 따르지 말고 융통성있게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번창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東洋에서 그리고 朝鮮時代의 허례적 형식주의의 융통성 없음을 통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화기의 우화는 조선시대 우화의 전통을 이어 받으면서도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구국책을 구하기 위한 정면적인 이론이 전개되는 문학형식이다.

## V. 결 론

개화기 문학은 개화기라는 時代的 특성을 곧바로 드러내주는 문학이다. 즉 民族的 위기의 시대에,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 속에서 저널리즘의 한 분야로 생산된 문학이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신문 논설과 寄書의 夢遊錄, 寓話, 討論의 형식을 띤 문학은 文學形式으로 정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開化期 民族運動의 커다란 맥락이었던 愛國啓蒙 운동가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들 작품은, 文學이 진정으로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과 형식을 가져야 하며,

또 그것을 生産해내기 위해서 作家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또 이들은 여지껏 한국문학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는데, 그것을 간과하게 만든 한국 문학연구 풍토 및 시각에 커다란 수정이 있어야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형식에서 발전한 作品인 단재의 「용과 용의 대격전」과 당대 식민지 시대의 한국문학을 비교해 볼 때,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요청케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위기의 시대인 개화기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민족의 생존권 보존이라는 명제와, 근대화라는 명제를 두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띄고 생산된 문학이다. 이러한 도구적 성격을 띄면서도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한 독자대중을 형성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문학을 생산해낸 계층의 한계이자 이러한 문학형식이 문학형식으로 정착할 만한 완결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애국계몽운동 지도자들은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前時代의 유교적 세계관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개화기의 民族의 生存을 유지할 수 있는 대다수 民衆層과 밀착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세계관이 文學形式 속에 반영되어 前時代의 形式을 빌어다 변형시켜 개화기의 시대의지를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그들의 民衆層과의 분리, 그리고 문학형식의 봉건적 특성은 民衆을 그들 문학형식과 연결시키지 못하게 한 요인이었다. 그 결과 개화기의 풍유록, 우화, 토론은 그 당시에 안정된 문학형식으로 정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당대로 보아서는 어떤 다른 형식의 문학보다 主流를 점하고 있었으며, 또한 가장 건강한 문학이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남은 과제는 이러한 문학의 좀더 치밀한 분석과 보다 명확한 성격 규명, 그리고 이러한 문학의 후대에서의 발달 현황의 연구 및 그것에 비추어 본 식민지 시대 및 오늘날의 한국문학의 재검토라고 할 수 있다.

## 作 品 年 譜

- |                 |       |          |    |
|-----------------|-------|----------|----|
| 1. 「漢北木犀山下에…」   | 광무 2년 | 9.13     | 토론 |
| 2. 「近日에 某小年이…」  | “ 2”  | 9.30     | 토론 |
| 3. 「余四十平生에…」    | “ 2”  | 10.14    | 몽유 |
| 4. 「皇城終南山下에…」   | “ 2”  | 10.17    | 토론 |
| 5. 「南隣北社爾豪客이…」  | “ 2”  | 10.29    | 토론 |
| 6. 「鄉客이 訪余하야…」  | “ 2”  | 11. 3    | 토론 |
| 7. 「昨夜의 寒風」…」   | “ 3”  | 1.16     | 몽유 |
| 8. 「清國志士가…」     | “ 3”  | 2. 8     | 우화 |
| 9. 「採山之人寄書」     | “ 3”  | 2. 20~21 | 토론 |
| 10. 笑山子가寄送惺惺夢記  | “ 3”  | 3. 6~7   | 몽유 |
| 11. 寓言          | “ 3”  | 3. 8     | 우화 |
| 12. 「清國北京近處에…」  | “ 3”  | 3.10     | 전기 |
| 13. 「三角山下에…」    | “ 3”  | 3.22     | 우의 |
| 14. 「一善談者가有하야」  | “ 3”  | 4. 0     | 토론 |
| 15. 「景城紫霞洞居하던」  | “ 3”  | 6.21     | 토론 |
| 16. 「余」作夕에」     | “ 3”  | 8.19     | 몽유 |
| 17. 「木覓山下에…」    | “ 3”  | 9. 5     | 토론 |
| 18. 「北村에 措다가…」  | “ 3”  | 9.11     | 토론 |
| 19. 杞憂生小傳       | “ 3”  | 9.18     | 토론 |
| 20. 魚樵問答        | “ 3”  | 9.20~22  | 토론 |
| 21. 「囊求者」…」     | “ 3”  | 9.29     | 토론 |
| 22. 「泰西에 有名學士」」 | “ 3”  | 12. 9    | 토론 |
| 23. 得過且過        | “ 3”  | 12.28    | 우화 |
| 24. 愛子心出於愛國心    | “ 4”  | 1.20     | 토론 |
| 25. 南廓子記夢       | “ 4”  | 3. 9     | 몽유 |
| 26. 暗室欺心神目如電    | “ 4”  | 3.20     | 우화 |
| 27. 石佛點頭        | “ 4”  | 6. 5     | 몽유 |
| 28. 農夫問答        | “ 4”  | 6. 7     | 토론 |
| 29. 鼓瑟客問答       | “ 4”  | 6.30     | 토론 |
| 30. 翁言三害        | “ 4”  | 7.13     | 몽유 |

31. 湖上飄藤	광무 4년	7.21	우화
32. 雲淵老虎尾說	" 4"	9.20	우화
33. 寄書	" 4"	10.17	몽유
34. 田舍問答	" 4"	11.22	토론
35. 醉睡禦寒	" 4"	12. 8	토론
36. 大○貨殖傳	" 5"	5. 9	전기
37. 二叟問答	" 5"	5.23	우의
38. 三老劇談	" 5"	7.25	토론
39. 夢遊動物園	" 5"	8.10	우화
40. 太平花譜	" 5"	8.17	우화
41. 禽鳥樂	" 5"	8.24	우화
42. 中秋賞月會	" 5"	9.27	토론
43. 醉興夢亦必諫之賞之	" 5"	12.30	몽유
44. 嘲癡生員	" 6"	1.18	토론
45. 嘲啞器	" 6"	3.19	토론
46. 鄉眠矇矓	" 6"	4.26	토론
47. 措大○論	" 6"	5.19	토론
48. 盲笑笑盲	" 6"	5.24	우화
49. 是日也反舌無聲	" 6"	6. 7	우화
50. 醉客高談	" 6"	7.26	토론
51. 倉鼠貽鼠之嘲	" 6"	11.15	우화
52. 記友人之言	" 6"	12. 6	토론
53. 措大諧	" 6"	12. 8	우화
54. 街談巷說	" 7"	6.22	토론
55. 其渠是何物也	" 7"	8.15	토론
56. 述客言	" 7"	10. 9	토론
57. 忙中間調	" 7"	10.10	토론
58. 聞方○也	" 7"	10.13	토론
59. 野人里談	" 8"	4. 9	우화
60. 外方情景	" 8"	4.27	토론
61. 亞實先生問答	" 8"	5. 6	토론

\* 8년 이후에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皇城新聞의 논설과 寄書난의 글이다.  
대한매일신보 작품연보는 생략한다.